

# 지난해 귀농·귀촌 50여만 명 젊은층 유입 늘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0만명 가까이 삶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기거나 농업을 생업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층의 귀농이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 경상북도 상주시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인 건축학교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

지난 28일 '농축산신문'이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같은 달 26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귀농·귀촌인 통계' 결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330명으로 전년보다 2만 6,487명(5.1%) 감소했으나 여전히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귀농인은 1만 7,856명, 귀어인은 98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5.5%, 0.5% 감소했으며, 귀촌인은 47만 2,474명으로 전년보다 2만 4,713명이 감소했다.

나타났다. 이 중 40세 미만 젊은층의 귀농가구수는 1,356가구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귀농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귀농 가구의 주요 재배작물은 채소가 43.4%로 가장 많았고 과수 29.9%, 논벼 28.9%, 특용작물 24% 순이었다. 가축 사육 가구는 총 373가구로 꿀벌이 34.9%로 가장 많았고 한우(28.4%), 곤충(13.4%)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유로는 직업이 가장 높은 33.3%를 차지했으며, 주거(28.4%), 가족 생활(2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직업이라 꼽은 귀농인 중 70.8%는 농업에만 전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4,572억원의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중심 실무교육과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올해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의 귀농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농지·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층의 농업·농촌 유입이 두드러졌다. 귀농·귀촌인 중 40세 미만이 49.1%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6.5%, 50대가 17.2%, 60대 이상이 17.2%를

# 한국 기업 UAE 에서 원유 생산 직도입도 가능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컨소시엄이 2012년부터 시작한 UAE 탐사 광구 개발에 성공해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한다. 한국 몫의 생산량은 연간 584만배럴에 달하며, 이는 현재 유가 기준으로 연간 3억 9,000만달러(약 4,000억원)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이 해외 유전을 직접 탐사·개발하고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것은 베트남 15-1광구와 11-2광구에 이어 세 번째로, 11-2광구가 2006년 12월 상업 생산을 시작한 지 13년 만이다.

수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584만배럴, 하루 생산량 4만배럴에 달한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약 3억 9,000만 달러 가치로 환산된다. 향후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루 생산량을 6만 배럴까지 증산할 예정이어서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할리바 유전의 상업생산 개시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와 공동으로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 최초로 UAE 탐사광구 개발에 성공,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한국컨소시엄이 할리바 유전에 참여했을 당시에는 발견원시부존량이 1억 8,000만배럴로 평가됐지만 지속적인 탐사와 평가 작업이 성공하면서 그 규모가 6배 이상인 11억 배럴로 증가했다. 발견원시부존량은 유전에 존재하는 자원의 총량을 의미하며 이 중 20~30%가 지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가체매장량이다.

앞서 UAE 한국컨소시엄과 ADNOC은 UAE 3개 광구에 대한 참여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할리바 유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유전의 지분은 ADNOC이 60%, 한국컨소시엄이 40%(석유공사 30%, GS에너지 1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컨소시엄은 보유 지분 만큼 원유와 가스를 확보할

특히 할리바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위치한 터미널로 이송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최근 있었던 유조선 공격과 해협 봉쇄 위기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생산 원유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의미가 큰 것이다.

UAE는 2018년 하루 38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세계 8위의 산유국이다. 그간 메이저 석유사와 소수 국가에만 자국 내 광구참여를 허가해 왔으며, 이날 생산 기념식을 가진 할리바 유전은 한국기업으로서 UAE에 최초로 진출한 사업이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